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착착’

20개 기관·기업 참여 2년차 사업 성과보고회

자율주행인증 구축·연구개발·인력양성 결실

광주 미래차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내 자율주행 인증 기반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핵심기술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 등도 적극 진행되면서 자율주행 부품 기술의 국산화와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도약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과 함께 17~18일 전북 번산 소노벨에서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통합 성과보고회’를 갖고, 2차년도 사업 추진결과를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광주시, LG이노텍㈜, 한국

알프스㈜, DH오토리드, ㈜에스오에스랩, KT, ㈜에니트, 한국광기술원,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분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등 20개 참여 기관·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기관·기업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지난 2023년 7월 산업부 공모에서 자율주행 부품분야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오는 2028년까지 진곡산단(부품 생산), 빛그린국가산단(인증·완성차), 미래차국가산단(실증)을 연계한 약 708만㎡(220만평) 규모의 미래차산업 삼각벨트를 조성해 자율차 부품의 핵심기술

인 인자·제어·통신 분야 국산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 인증지원센터’는 지난 9월 30일 착공했으며 내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2024년 5종, 2025년 6종을 구축한데 이어 내년까지 총 21종의 자율주행 검증 장비를 구축해 시험·평가·인증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등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참여기업들의 핵심 기술 연구개발(R&D) 성과도 두드러졌다.

에스오에스랩은 윈드실드 오염 및 악천후에도 안정적인 인지가 가능한 엣지 임베디드 모듈을 개발했다. DH오토리드는 노면 반력모사 액추에이터와 안전성을 위한 이중화 전원시스템 등 핵심 구성요소를 개발했다. ㈜에니트는 차량과 교통 인프라 간 정보를 교환하는 로드사이드 유

닛(RSU)의 1차 시제품을 제작했다.

광주산학융합원은 지역 기업의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부품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특화교육과 R&D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했다.이를 통해 연말까지 총 2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할 예정이며, 산학연 연계 현장형 심화교육 등 기업 맞춤형 교육자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동현 시 미래차산업과장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자율주행 인증지원센터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각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국정과제로 반영된 AI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 지역기업들이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18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 출범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1만2800여가구 조성 본격화

시·LH·주민대표 참여…민·관·공 협의체 출범

광주시는 1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민·관·공 협의체는 광주시(1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4명), 주민대표(5명)가 함께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대한 의견

을 모으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사업에 대한 견과 현안을 정기적으로 공유·소통할 예정이다.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사업은 국토부의 ‘공공주택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다. 2030년까지 광산정·장수동

일대에 1만2875세대(공공주택 6630세대, 민간분양 6139세대, 단독주택 206세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2030년까지의 ‘광주지역 공공주택 보급계획 물량’이 예상 수요에 비해 2만8000세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사업의 공공주택 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LH가 광주산정 공공주택

지구사업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주택 100%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변성훈 광주시 공간혁신과장은 “협의체는 광주산정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조정하고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상생과 협력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 대기업 투자 메카로 급부상”

김영록 지사, 현대차·삼성·SK 등 투자 성과 소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8일 “삼성·SK, 현대 등 주요 기업이 앞다퉀 전남의 에너지·AI·조선 산업에 투자를 선언하며 전남이 대한민국 신산업 지도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전남과 직결된 중대 투자 계획을 직접 밝혔다”면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서남해안권에 수전해 플랜트를 세워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소AI시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HD현대 정기선 회장은 대불 국가산단을 스마트 조선소로 전환하고, 솔라시도 AI데이터센터와의 연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며 “전남의 산업지형을 근본적으



로 바꿀 대형 프로젝트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남의 최근 투자 유치 성과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삼성SDS의 국가 AI컴퓨팅센터 공모 후보지 선정에 이어 오픈AI-SK 공동 글로벌 AI데이터센터 조성, LS전선의 국내 최초 해상 풍력 전용항만 구축까지 이어졌다”며 “전남이 대기업들의 미래산업 투자 거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은 결코 투자 기업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확대는 물론 에너지 대전환과 AI 수도 전남 실현에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 학교 무상급식 분담비율 확정

2026~2028년 3년간 지자체 40%·교육청 60% 부담

전남도는 최근 전남도교육청과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을 지자체 40%와 교육청 60%로 최종 합의하고, 이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적용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를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상생을 개선하고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5월 ‘장기분담비율 조정 등 학교급식 관련 공동 T/F’을 구성했다.

공동 T/F는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전남도의회, 학교급식 관계자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 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 친환경농산물 공급 방식과 공공급식통합플랫폼 보급 확대 방안 등 효율적 학교급식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2차례 진행해 학교, 공급업체, 친환경농

산물 생산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처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상급식 분담비율과 유지 기간, 친환경농산물 공급방식(현물), 공공급식통합플랫폼 확대 추진 등이 합의됐으며, 합의를 토대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합의는 전남도와 교육청이 학생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간 의미 있는 성과다”며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 기반을 꾸준히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급식 관계자에게도 안정적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만큼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전남 학교급식이 한층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2026년 무상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496억원, 친환경농산물 등 식재료 차액 지원사업에 393억원 등 총 889억원을 학교급식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론스타 4000억원 배상 책임 소멸”

정부,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 사건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고 김 총리는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

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알림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조수연 (사)한국재난안전협회 광주지회 이사
20일 오후 7시 광주시청 행정동 2층 무등홀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강연이 11월 20일(목) 오후 7시 광주시청 행정동 2층 무등홀에서 열립니다.

조수연 이사는 현재 (사)한국재난안전협회 광주지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전임강사를 역임했습니다. 경력으로는 광주시 민방위 응급처치 전임강사, 전남도 민방위 응급처치 전임강사, 광주·전남 어린이안전법 응급처치 실습 강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화재안전, 지진, 생활안전,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초청강사 : 조수연 (사)한국재난안전협회 광주지회 이사

△주 제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일 시 : 2025년 11월 20일(목) 오후 7시

△장 소 : 광주시청 행정동 2층 무등홀

△문 의 :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사업국 (062-370-7090)

해남·순천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전남도, 연구용역 착수…글로벌 교육 인프라 확충

전남도가 해남·순천에 기업도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중 순천 신대지구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국내외 학생 유치를 통한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도청 사제 필실에서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도 외국교육기관 설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외국교육기관은 해외 비영리학교법인인 국내에 설립·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K-12) 형태의 교육기관이다. 전 교육과정에서 영어 등 외국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국제 인증 커리큘럼(IB·AP 등)을 운영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의 타당성과 운영모델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주요 내용은 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의 정주 여건과 산업 인프라 분석, 외국인과의 내국인 입학 수요 예측, 경제성·정책성 분석, 도민 의견 수렴 등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 시 필요한 적정 규모(정원·시설), 재원 조달 방안, 위탁운영 전략, 행정절차 대응체계 등을 마련해 실현 가능한 로드맵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최근 순라시도 기업도시가 국가의 RE100 산업단지와 오픈AI-SK, 삼성SDS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부지로 거론되면서 외국인 전문 인력과 그 가족의 지역 정주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